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0호 / 2016년 10월



---

####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TEL | 02-2156-2103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0호 / 2016년 10월

| 발행일 | 2016년 10월 10일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이의준

|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3층

(TEL: 02-2156-2100)



## 뉴스&리뷰

### 협회장 동정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간담회 참석
-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식 참석
- 2016 매경 핀테크어워드 참석

### 회원사 소식

#### KVCA 소식

- ‘청탁금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VC 관련 법령 설명회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VC 조찬간담회
-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업무협약식
- 2016년 제2차 정책위원회

### 연수원 소식

- 2016년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 과정

### 투자협력·M&A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M&A지원센터 간담회 및 선정위원회
- 부산·울산·경남 벤처투자자로드쇼
- 9월 벤처투자 사랑방
- 유망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 투자유망기업탐방

## 이 슈

청탁금지법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동향  
벤처캐피탈 법률 Q&A

## 시장동향

8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상반기 해외 벤처투자시장 통계(중국, 유럽)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 편집자노트

한번 ‘야단법석’을 떨어보시지요



# 01

## 뉴스&리뷰

### NEWS & REVIEW

---

#### 협회장 동정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간담회 참석
-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식 참석
- 2016 매경 핀테크어워드 참석

#### 회원사 소식

##### KVCA 소식

- ‘청탁금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VC 관련 법령 설명회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VC 조찬간담회
-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업무협약식
- 2016년 제2차 정책위원회

##### 연수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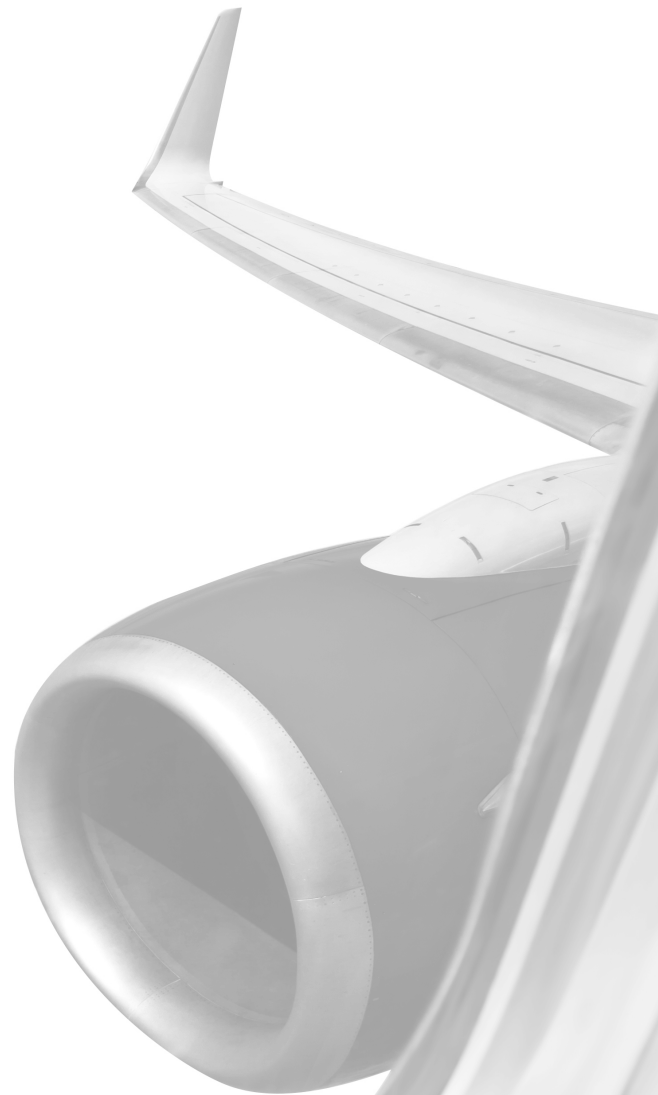
- 2016년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 과정

##### 투자협력·M&A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M&A지원센터 간담회 및 선정위원회
- 부산·울산·경남 벤처투자로드쇼
- 9월 벤처투자 사랑방
- 유망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 투자유망기업탐방

---





## 협회장 동정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 간담회 참석

9월 28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현대차 파업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대차 평균 1년 임금은 1억 원에 달해 보통 중소기업보다 2배 정도가 높다"며 "그런데도 임금 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단행해 중소기업인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본회 이용성 회장을 포함하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중기중앙회 임원 14명이 참석했다.

###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식 참석



지난 9월 21일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중소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1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서는 기술혁신 및 기술인재분야 훈·포장 등 200여점의 시상이 이뤄졌으며, 이용성 회장은 개막식 참석 후 중기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과 함께 VIP 오찬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2016 매경 핀테크어워드 참석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주관한 '2016 매경 핀테크어워드'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VIP로 참석하여 관련업체 시상에 나섰다. 9월 6일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핀테크 혁명을 주도할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장대한 매일경제 회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각 금융협회 협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회원사 소식

### 대표이사 변경

회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현대기술투자	김기식	권 토마스 오윤

### [미래에셋벤처투자]

300억원 규모의 한국IT펀드(KIF)투자조합을 새로 결성한다. KIF가 180억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캐피탈이 75억원, 미래에셋벤처투자는 45억원을 출자한다.

### [송현인베스트먼트]

전자자전거 스타트업인 하이코어에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달 3억원 규모의 우선주 6만주를 인수하였으며 투자금은 'K-클라우드펀드'를 통해 조달됐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메타닉과 세컨더리 투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지난해 결성한 '한·중 문화·ICT융합펀드'의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애니메이션 '티버스터'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를 단행했으며 규모는 10억원이다.

### [원익투자파트너스]

300억원 규모의 새 벤처펀드 결성을 앞두고 있다. 펀드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앵커 LP인 국민연금이 200억원을 출자하고 원익IPS와 원익홀딩스가 각각 35억원씩 70억원을 납입한다.

###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올해 첫 펀드로 300억원 규모의 한국IT펀드(KIF)투자조합을 만든다. 앵커 유한책임출자자는 KIF로 180억원을 출자하고 유안타그룹 계열사인 유안타증권 등이 함께 출자자로 나선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30억원 이상 출자할 예정이다.

### [이수창업투자]

1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전문 펀드인 'IBK-ISU 문화콘텐츠 조합'을 결성했다. 'IBK-ISU 문화콘텐츠 조합'은 정책자금 없이 민간 투자자의 출자로만 조성되었으며 IBK기업은행과 NH농협캐피탈이 결성 총액의 70%를 출자했다. 대표 펀드매니저는 김종화 상무가 맡았다.

### [이앤인베스트먼트]

게임업체 엔터메이트의 중국 게임사업과 관련한 성장성에 기대를 걸었다. '이앤컨텐츠투자조합2호'와 '이앤컨텐츠투자조합3호'를 통해 게임회사 엔터메이트의 주식 258만 9000주(지분율 9.8%)를 장외에서 80억원에 인수했다.

### [이후인베스트먼트]

2014년 고유계정을 통해 게임업체 미투온의 보통주 약 15억원어치를 인수했으며 투자 당시 미투온의 기업가치는 약 460억원 수준이었다. 최근 미투온의 코스닥 상장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이후인베스트먼트의 차익은 약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터베스트]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22억원어치를 인수할 계획이다. 메지온 BW를 인수할 펀드는 지난 5월말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위해 결성된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이다.

### [제미니투자]

제미니투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미 신기사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은 확충하였고 최근 벤처조합인 '제미니영상투자조합 1호'를 해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기사 등록 준비를 마쳤다.

### [지앤텍벤처투자]

'경남-지앤텍 창조경제혁신펀드'가 결성 이후 총 7개 기업에 70억 2,000만원을 투자했다. 대부분 지역 기반 기업 및 전략 산업 등 주목적 투자 분야이다. 주목적분야 투자 소진율이 36%에 달하는 등 발 빠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올해 초 두 운용사가 공동으로 결성한 'KB-솔리더스 글로벌헬스케어펀드'로 투자를 집행할 예정으로 이 펀드의 마수걸이 투자가 될 전망이다.

### [케이큐브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케이큐브벤처스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모바일 게임 개발사 솔트랩에 총 40억원을 투자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제4호 카카오 성장나눔게임' 펀드를 통해 30억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애니팡미래콘텐츠투자조합'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우선주를 인수했다.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네오플렉스]

두 기업이 나란히 의약품 원료 생산기업 화이트제약에 투자했다. 독자적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서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코오롱 소재부품투자펀드 2014-5호'와 '2013코오롱-성장사다리스

타트업투자조합'을 통해, 네오플렉스는 '네오플렉스 기술가치평가 투자조합'을 통해 각각 30억원, 20억원을 투자했다.

### [티에스인베스트먼트]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는 예비심사 통과 이후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프리미어파트너스]

지란지교시큐리티(케이비제5호스팩)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최근 케이비제5호스팩과 합병을 완료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약 23억원의 차익을 기록했다.

### [플래티넘기술투자]

'경기-KT-유진 슈퍼맨투자조합'의 결성을 앞두고 있다. 이번 펀드는 총 210억원 규모로이며 경기도(50억원)와 KT(50억원), 유진초저온(70억원), IBK기업은행(10억원)이 출자하며 플래티넘기술투자는 30억원을 출자한다.

###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최근 '피앤아이 문화창조투자조합'을 통해 게임회사 테이크원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1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피앤아이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게임 '도시를품다'가 성공하며 이미 가능성을 증명한 업체"라며 "향후 융합콘텐츠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KVCA 소식

### ‘청탁금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VC관련 법령 설명회



본회는 9월 6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최근 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VC관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회가 올해부터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중인 M&A사업 관련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이달 시행예정인 법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도 관련 자료요청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 간	내 용	강 사
14:00~15:30(90')	청탁금지법	단국대 법과대학 김래영 교수
15:30~16:00(30')	M&A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협회 김대희 부장
16:00~16:30(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무법인 이후 권낙현 변호사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VC 조찬간담회

9월 26일 VR빌딩 4층에서 중기청장 주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VC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청장을 포함한 3명이 참석하였고 VC업계에서는 본회 이용성 회장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중기청에서 벤처투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뒤이어 VC업계의 건의사항 등이 한 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추후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업무협약식



본회는 9월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와 ‘창조경제혁신센터 M&A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 기관은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 M&A 시범사업’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보육기업 대상 M&A 교육, M&A 장터 조성, M&A 인식개선 교육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M&A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16년 제2차 정책위원회 개최

지난 6월 출범한 정책위원회가 9월 20일 2차 모임을 갖고 벤처기업법 개편에 관한 방향 및 벤처투자 정보취합 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총 8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는 조찬모임으로 약 한시간반 가량 역삼동 벨레상스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 연수원 소식

### 2016년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 과정

학교: 카이스트(대전)  
일자: 2016년 9월 2일 ~ 12월 16일

중소기업청 및 본회 연수원은 벤처캐피탈 인프라 확산 및 우수 인력의 벤처캐피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카이스트(대전) 산업시스템공학과,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2학기 「벤처투자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40~70여 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며, 벤처캐피탈 실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선배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초청하여 멘토링데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 용	강 사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이의준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상무 김현진
Valuation & Pricing	이앤인베스트먼트 이사 서상록
벤처캐피탈과 법률(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이종건
VC 투자 핫 이슈 I - 제약 및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 김명기
신주 인수 투자계약서 해설	변호사 이종경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벤처기업 M&A 절차 및 Case Study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개요 및 Due-Diligence 사례	원익투자파트너스 상무 이석재
VC 투자 핫 이슈 II - 문화콘텐츠,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데브시스터즈벤처스 대표 최형규
중국 VC/PEF 시장 현황 및 중국 투자 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팀장 강준규
VC 투자 핫 이슈 III - ICT서비스/유통,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인터베스트 전무 임형규
벤처기업(초기) 투자와 Value up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강석훈

학교: 고려대학교  
일자: 2016년 9월 3일 ~ 12월 10일

내 용	강 사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및 창업투자 정책 현황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원장 정영태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엘비인베스트먼트 전무 구중희
Valuation & Pricing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영민
벤처캐피탈과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이종건
VC 투자 핫 이슈 I - 제약 및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미래에셋벤처투자 이사 김재준
신주 인수 투자계약서 해설	변호사 이종경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키움증권 이사 장지영
벤처기업 M&A 절차 및 Case Study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훈식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개요 및 Due-Diligence 사례	원익투자파트너스 전무 이태규
VC 투자 핫 이슈 II - 문화콘텐츠,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VC 투자 핫 이슈 III - ICT서비스/유통,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보광창업투자 이사 신윤수
중국(해외) VC/PEF 시장 현황 및 중국 투자 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 호경식
벤처기업(초기) 투자와 Value up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대표 김대영

학교: 서울대학교

일자: 2016년 9월 23일 ~ 12월 19일

내 용	강 사
한국 경제와 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대표 조강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전무 맹두진
Valuation & Pricing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벤처캐피탈과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투자파트너스 변호사 이상화
VC 투자 핫 이슈 I - 제약 및 바이오,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 황만순
신주 인수 투자계약서 해설	미래에셋벤처투자 상무 채정훈
IPO 절차 및 방법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개요 및 Due-Diligence 사례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 김성은
벤처기업 M&A 절차 및 Case Study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VC 투자 핫 이슈 II - 문화콘텐츠,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캐피탈원 대표 여한구
중국 VC/PEF 시장 현황 및 중국 투자 사례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진하
VC 투자 핫 이슈 III - ICT서비스/유통,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보광창업투자 이사 신윤수
벤처기업(초기) 투자와 Value up	소프트뱅크벤처스 부사장 강동석

\* 2016년 1학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과정 운영 완료

## 1기(2016) 벤처캐피탈 최고경영자 과정 개최 예정

최고경영자 과정은 올해 처음 개설된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한 벤처캐피탈 회사 리더의 투자철학 및 문화적 소양 강화와 업계 내 상호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신청 기한은 10월 21일(금)까지이다.

일자: 2016년 11월 2일 ~ 11월 4일  
(2박 3일 숙박)

장소: 강원도 강릉 씨마크  
(SEAMARQ)호텔 2층

내 용	강 사
(철학) 시진핑을 말한다	도올 김용옥 (철학자)
(건축) Less is More & More is More	김개천 (국민대학교 교수)
(리더십) 세종의 리더십	박현모 (여주대학교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
(경영/경제)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덕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정책) 2017 벤처투자 정책 방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디자인) 아름다움에 대하여	박현택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전문경력관)

## [10월 교육 안내]

교 육 명 :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운영 형태 : 1일 출석

일 자 : 10월 13일(목)

대 상 자 :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VC 임직원 중 \*교육 만기일이 도래한 자

과정 개요 : VC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전문인력 확인·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만기일은 교육 이수 2년 경과일을 의미

교 육 명 : 벤처캐피탈리스트 제21기 전문가 과정(공통, 필수)

운영 형태 : 5박 6일 합숙 / 3일 출석

일 자 : 10월 17일(월)~22일(토) / 10월 26일(수)~28일(금)

대 상 자 : 벤처캐피탈업계 및 금융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과정 개요 : 전문적인 심사 및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투자협력·M&amp;A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9월 VC Meeting Day 개최

지난 9월 28일 본회 상담실에서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VC Meeting Day가 개최되었다. 올해 선정기업은 투자유치 성공기업에 대해서 2년에 걸쳐 지원했던 예년과 달리, 1차년도 과제기간 중 VC 등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에 성공 시 2차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회는 투자심사역과 주관기관 투자유치담당자가 1:1로 만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날 행사에는 12개사의 기업과 심사역이 참석하였다. VC Meeting Day는 연말까지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1차년도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간은 내년 4월 27일까지이다.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VC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수립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개편에 VC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월 21일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시장니즈를 반영한 기술로드맵 구축을 위해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유망제품 및 기술을 발굴하여 R&D 투자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는 투자심사역 6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향후 본회는 11월 투자심사역으로 구성된 과제발굴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자유망품목 발굴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개편 진행상황에 맞춰서 투자심사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M&amp;A지원센터 간담회 및 선정위원회

본회는 9월 2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M&A 지원센터 등과 함께 M&A 지원센터 간담회 및 기업진단비용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진단비용 1차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표결에 참여하여 신청기업 3개사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향후 M&A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는 양질의 자문기관 양성, 인수목적 확인 등 기업진단비용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부산·울산·경남 벤처투자로드쇼

본회는 9월22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투자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이번 로드쇼에는 벤처캐피탈 14개사(15명),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투자유망 중소기업 1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 및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동남권 펀드(엘앤에스 7호 동남권 상생 투자조합)를 운영하고 있는 엘앤에스인베스트먼트의 장기웅 전무(대표펀드매니저)가 직접 참석해 로드쇼의 의미를 더했으며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엄진엽 청장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월 벤처투자로드쇼 안내]

일 자 : 10월 28일(금)

대 상 : 충청지역 바이오분야 투자유망기업

VC 참가문의 : 김재익 연구원 (02-2156-2134 / jji@kvca.or.kr)

## 9월 벤처투자 사랑방

벤처투자 사랑방은 중소·벤처기업과 투자기관 심사역 간의 1:1 투자 상담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유치 기반을 탄탄히 하고 벤처캐피탈은 기술추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객관적인 투자심사가 가능하다.

9월 28일 본회에서 개최된 벤처투자 사랑방에는 ICT서비스·제조분야, 정보통신분야, 지식서비스분야 등의 중소벤처기업 10개사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이에스인베스터, 케이티비네트워크 등 벤처캐피탈 5개사가 참여하여 상담이 진행됐다. 다음 행사는 오는 10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벤처투자 사랑방 홈페이지 (<http://cafe.kvca.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망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본회는 환경부의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차례(제2차, 제3차)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월 8일에는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빅베이슨캐피탈, 아람코코리아, 테크코드코리아 등과 환경기업 6개사가 참석하여 글로벌 투자상담 및 IR을 진행하였다. 한편 9월 23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부산·경상권 지역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부산·경상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망 지방환경기업 6개사와 서울기술투자,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시너지벤처투자 등 벤처캐피탈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었다. 본회는 환경산업에 대한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곧 다가올 10월 18일에 코엑스에서 환경투자컨퍼런스 개최를 준비중이며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투자유망 환경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 투자 유망기업 탐방

이번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기업은 국내 최초로 항공기의 항법장치와 피아식별장치 (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의 고장 유무 탐지를 위한 자동검사 장치 및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사업을 하고 있는 국방 벤처 '(주)브이엘티'입니다.

### 피아식별 장치 통합솔루션 제공

(주)브이엘티(대표 박용한)는 2003년 11월에 설립, 전자계측기 유통으로 시작하여 5년 전부터 국방 전투체계 개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판매제품으로는 피아식별장치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창 정비용 ATE (Automatic Test Equipment) 시스템으로 현재 공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F-16 전투기, UH-60헬기에 장착된 피아식별장치의 창 정비(MRO) 수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피아식별장치는 비행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고장 발생 시 적군으로 오인 피격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국내 언론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미 정부는 한국군이 보유중인 무기체계의 피아식별장치를 2019~2021년까지 개선 할 것을 요구 (피아식별장치를 현행 모드-4에서 모드-5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군 육해공 전력 3,200여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피아식별장비 (IFF)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IFF 성능개량사업은 IFF장비, 비화장비, 체계통합, 지상지원장비, 유지보수 업무로 구분되며, (주)브이엘티에서는 관련 사업 수행실적(국내독점기술)을 바탕으로 체계통합, 지상지원장비, 유지보수업무(MRO) 사업부문에서 국내 대기업 방산 업체 및 해외 IFF 제작사와 협력하여 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IFF의 성능개량 사업의 2019년 - 2021년 예상시장규모는 국내 약 2조원이며, 체계통합, 지상지원장비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2022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은 제외)



#### IFF 통합솔루션 제공

IFF 정비+ATE시스템+국산화



#### IFF 국산화

한국형 전투기  
무인기용 IFF  
개발 및 생산

#### IFF 통합솔루션

#### MRO



#### MRO

IFF, DFLCC등  
항법 시스템 창정  
비 업무수행

#### ATE



#### 자동검사장비

IFF, TACAN, ILS/VOR등  
항공전자 및 각종 시험 장비 생산



## 세계시장

- ① 전세계 항전 시장은 2011년 50억달러이며, 매년 6.5%성장, 2012년 **88억달러** 전망
- ② 미국의 동맹국 **약 20개** 국가에서 현재 IFF 성능 개량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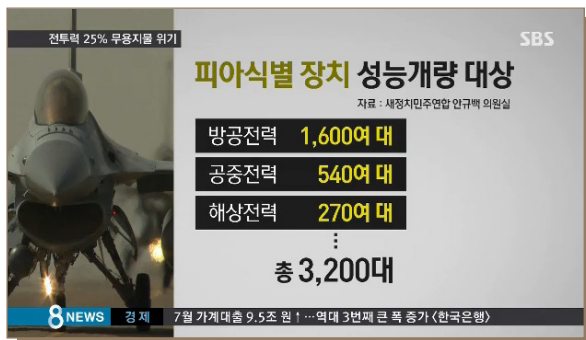
### 독일 Cassidian사, 독일군 피아 식별 시스템 현대화 예정

- Cassidian사는 독일군의 식별 시스템을 NATO의 새로운 'Mode 5' IFF 표준으로 성능 개량할 예정임
  - 독일은 NATO의 모든 식별 시스템의 현대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식별 시스템의 임무는 아군 항공기와 적군 항공기를 구분함으로써 아군에 대한 오인사격의 위험을 줄이는 것임
  - NATO는 모든 IFF 시스템의 현대화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 독일연방군조달기관(BAAINBw)은 기존의 MSSR 2000 I 을 신형 Mode 5 표준으로 전환시키는 계약을 Cassidian사와 체결하였음
  - BAAINBw : Federal Office of Bundeswehr Equip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Service Support
  - MSSR: Monopulse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 1단계로 독일 해군 함정 종류별 1개 타입, 독일 육군의 모바일 시스템 1개, 군용 항공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2개의 지상국을 현대화할 예정임
- 다음 단계에서는 지상과 함정 시스템에 있는 모든 2차 레이더들을 현대화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관련 트랜스폰더(transponder)들을 전환할 것임

독자로 이동  
국방기술품질원

## 국내시장

- ① 국내 IFF 관련 시장규모는 현재 50억원에서 2019년 **5,000억원**으로 성장예상
- ② 현재 IFF 성능개량 사업 추진 중 2021년까지 사업완료 예정



\*출처 : 2015년 SBS 보도자료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사업에 관심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한국군의 IFF 성능개량사업의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주)브이엘티 피아식별 장치 선행 사업수행 실적

- ▶ 2014. 10. 16 ~ 2015. 06. 30  
(계약처: 공군 86 정비창)
  - 건명 : 적아식별기 자동점검장비
  - APX-101창정비용 자동검사장비 국산화 납품
  - IFF Mode 1,2,3,4,A,C,S 모드신호 발생
- ▶ 2014. 09. 25 ~ 2015. 06. 30  
(계약처: 방위사업청)
  - 건명: KF-16 적아식별장비 정비
  - APX-109 AIFF 창정비 수행
- ▶ 2014. 11. 13 ~ 2015. 06. 30  
(계약처: 방위사업청)
  - 건명: KF-16 적아식별장비 안테나 정비
  - APX-109 BFN ANT 창정비 수행
- ▶ 2015. 08. 27 ~ 2016. 06. 30  
(계약처: 방위사업청)
  - 건명: 증폭기, 무선주파수용 정비
  - APX - 100 UH-60 헬기 적아식별장치 증폭기 창정비 수행
- ▶ 2016. 05. 01 ~ 2018. 04. 30
  - 중소기업청 투자연계개발 사업 선정
  - 통신 항법장비 기능점검을 위한 휴대용 RAMP TESTER 개발
  - IFF Mode 1,2,3,4,5A,C,S, ADS-B, ILS/VOR, DME, TACAN등기능점검용

피아식별장치 관련기술은 미국 및 유럽 일부국가만 보유한 기술로 해외 수출시 미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일부 핵심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나, (주)브이엘티는 국내 유일의 다수 사업 수행실적과 관련기술을 바탕으로, 피아식별장치의 성능개량사업에 적극 참여 할 예정입니다.

## 중장기 발전방향과 기대효과

항공산업은 시장진입이 매우 어렵고, 시장진입이 성공한다면 항공기 수명주기 30년을 고려할 때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됩니다. (주)브이엘티는 차기 한국형전투기(KFX)사업 및 공격헬기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위한 IFF 및 Generator 정비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성장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세계항공우주 시장은 2015년 기준 4,000억달러 규모이며, 항공우주 산업은 향후 10년간 4%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6,0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은 해외 선진국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투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고용 증진 기여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브이엘티는 본회가 운영하는 2016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 브이엘티 박승한 이사(010-5254-449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 02

## 이슈

ISSUE

---

청탁금지법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동향  
벤처캐피탈 법률 Q&A

---





# 청탁금지법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sup>1)</sup>

## 1. 말머리

2016년 9월 28일 우리 사회를 뿌리째 바꿔놓는다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흔히들 말하는 ‘김영란법’은 삼가는 것이 좋다)이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인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 판단하였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이후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들 교육을 앞 다투어 실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분주하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해설서와 사례집, 기관별 매뉴얼이 그 세부적인 내용, 설명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며칠 전에는 매뉴얼의 내용을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정정하기도 하였다(소위 3-5-10을 넘으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가, 초과 부분만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 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와 관련된 부분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이 글은 협회만큼은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는 글이다.



김래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이고, 해설집 등의 발간에 관여하였으나,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 2. 청탁금지법에서의 협회의 법적 지위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 2조 '정의' 조항에서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직자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이르러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하여 소위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한되는 행위유형이 공직자등과 다르다)

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위탁받았다. ① 벤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보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및 투자실적 확인에 관한 사항 ② 벤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협회는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위탁받았다. ① 지원법 제9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③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 ④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결산서 및 지원법 제23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⑤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⑥ 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⑦ 지원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즉, 협회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등은 아니고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그러나 협회의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 자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국민권익위의 직종별 매뉴얼에는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임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협회 자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될 뿐, 협회의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협회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다.

## 3. 적용 범위

첫째, 제한되는 행위 유형을 살펴본다.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은 청탁, 금품 등수수 뿐 만 아니라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도 적용받는다. 그러나 협회는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나 협회의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있어서는 상한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둘째, 인적 적용범위를 살펴본다. 공무수행사인은 협회 자체이기 때문에 협회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과 달리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 규정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기능을 한다. 법 제24조에 의하여 비로소 공무수행사인인 협회의 임직원이 처벌되면서 협회도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법문(法文)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령 협회의 경리, 경비, 시설, 인사,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4. 청탁금지에 관하여

법 제5조는 청탁금지의 유형과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법에 규정된 유형은 14가지인데, 모두 ‘법령을 위반하여’가 공통된 요건으로 되어 있다. 제7호가 ‘계약 관련 법령’, 제9호가 ‘정당한 거래관행을 위반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을 따름이다. 제15호는 이들 14가지 유형의 행위를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이다. 이들 유형은 한정적, 열거적 조항이다. 예시적 조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에 규정된 유형만이 제재 대상이 될 뿐 다행히 법 유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예외사유로 구체적 6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인지 부정확한 청탁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쉬운 구별 방법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남들한테 미안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법 위반이 되는 행위이다. 가령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나 수술 순서, 공공기관 운영의 골프장 예약 순서 변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 기준은 청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청탁 혹은 압력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가령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최고위층이 실무자에게 “승진방법 등을 알아봐라, 기한 내 처리하라”는 말은 실무자에게는 “승진시켜라, 최우선 처리하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무원인데 생면부지의 율령군청 공무원이 전북도경 수사관에게 “우리 형이 수사받고 있는데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되기 쉬운 것과 비교된다.

#### 5.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직무관련성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돈 1만원도 받을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으로 3-5-10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3-5-10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 A 벤처회사의 개발팀장 갑과 협회의 을 과장은 친구 사이이나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 그러나 갑과 을은 친구이면서 이웃이기도 하여 사교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대접이 가능하다. 그런데 갑이 근무하는 A 회사가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였다면 두 사람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협회가 주의할 점은 제8조제3항제6호를 주의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3-5-10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민간인과 공직자등을 구별하지 않고 참가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지만 하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협회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혹은 협회의 임직원이 사기업으로부터 이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공식적인지, 주최자가 제공하는 것인지(반대말은 사기업 등으로부터 협찬받아 제공하는 것인지이다)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6. 맺음말

요청받은 원고의 분량을 조금 넘었는데도 법의 주요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필자의 요약 혹은 전달 능력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가 명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설명하였다고 자부한다. 아무쪼록 이 짧은 글이 협회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글을 맺는다.

## VC관련 법령 및 제도개정 현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제출 : 10/10까지)

### □ 개정이유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

### □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조



# 벤처캐피탈 법률 Q&A

벤처투자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석코너입니다.

**Q** 피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익배당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가?

**A**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의안이 승인되면 주주는 의결된 특정금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갖게 됨. 이는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 별개로 양도, 압류, 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도 진행을 하게 됨.
2. 주주는 주주권의 일부로 추상적 권리로써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그 권리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함으로써 그 결의에 따라 확정적인 금전채권으로서 배당금 채권을 취득하게 됨.
3. 배당정책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이익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할 수 없음. 판례(서울고등법원 1976.06.11. 선고 75나1555 등)도 동일한 취지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전에는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주주에게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며 배당결의가 없다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sup>1)</sup>하고 있음.
4. 다만, 투자계약서 등에 채권적 약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인 대주주 등에게 일정 배당무무를 부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적 약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위법한 금전배당의 효과]

**Q** 피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는가?<sup>2)</sup>

**A**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 제462조가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임. 피투자기업이 그 반환을 구할 있으며, 회사의 채권자에게도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일명 '낙지배당<sup>3)</sup>'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로서 위법한 배당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2. 위법한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거친 이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익이 없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회사법의 대원칙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는 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배당결의와 무관하게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회사는 일반적인 민법 상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
3.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위법배당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채권자도 직접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권자는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반환을 하라고 청구를 하는 형태가 되게 됨.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1) 장기 무배당결의는 다수결의 남용일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음.

2) 투자계약서 상에 일정 권리제한 조항이 있어 투자계약서 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논외로 함.

3) 자산의 과대평가, 부채의 과소계상 등을 통하여 가공의 이익을 만들어 내어 배당을 하는 경우를 말함: 낙지와 문어는 배가 고르면 자기의 발을 끊어 먹는 습성이 있음. 회사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경우를 이 습성에 빗대어 흔히 「낙지배당」, 「문어배당」 또는 「제꼬리배당」이라고 함.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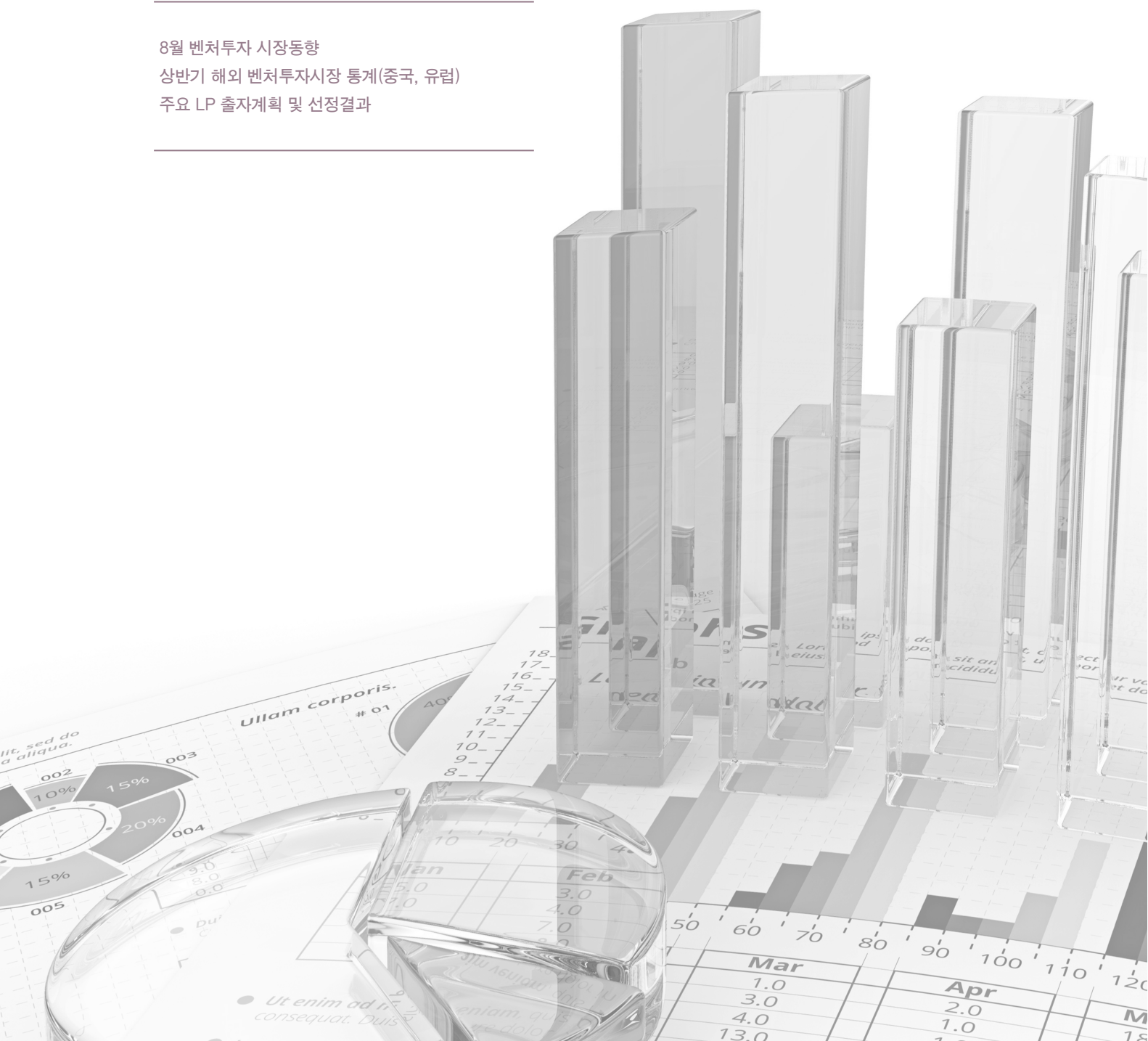
## 시장동향

### MARKET TREND

8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상반기 해외 벤처투자시장 통계(중국, 유럽)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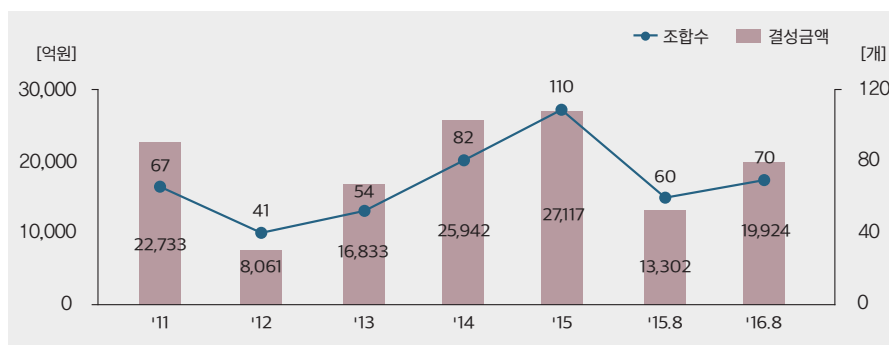
## 8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2016년 8월에 5개 조합(창투조합 4개, KVF 1개)이 605억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8월에는 총 179건(115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전년 동월(1,666억원) 대비 142억원(8.5%) 감소한 1,524억원인 반면, 투자기업 수는 115개사로 전년 동기(103개) 대비 12개사 증가
- 8월 회수는 주식매각/상환을 통한 회수가 52.5%로 가장 높았으며, IPO를 통한 회수비중이 17.7%를 차지

## 투자재원

### ■ 조합결성

금년 8월까지 70개 조합, 19,924억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60개 조합, 13,302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10개(16.7%), 결성금액은 6,622억원(49.8%) 증가한 수치이다.



###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 금년 8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기관 25.4%, 벤처캐피탈이 15.4%, 일반법인 13.7% 등의 순이다.
-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4.7%로 전년 동기(52.8%) 대비 11.9%p 증가하였다.

[단위 : %]

조합원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8	2016.8
정책기관 (모태펀드)	16.9	32.8	32.6	16.6	31.6	36.9	25.4
	(11.7)	(24.9)	(31.4)	(14.4)	(23.6)	(26.9)	(19.5)
금융기관 (산은/정금)	23.6	19.9	28.8	22.5	22.5	14.9	27.2
	(17.6)	(7.4)	(16.2)	(12.3)	(4.1)	(3.4)	(8.4)
연금/공제회	21.2	10.9	8.4	20.4	4.3	0.8	9.9
벤처캐피탈	13.4	19.7	13.1	11.5	11.5	15.9	15.4
일반법인	12.3	11.7	13.0	9.5	13.9	16.3	13.7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7.9	1.6	1.0	12.8	10.6	7.9	5.7
	(0.0)	(0.0)	(0.0)	(11.1)	(9.2)	(6.9)	(1.5)
개 인	0.8	0.9	1.8	3.4	3.5	4.1	1.5
외국인	3.9	2.5	1.3	3.3	2.1	3.2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8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플래티넘 - '지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하여 투자기간 4년을 포함하여 9년간 정기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청년기업과 G밸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 오스트 - 기업공개 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한 '오스트 성장기여2호 펀드'는 바이오, 헬스케어, 코스메틱 등이 주요 투자처로 메자닌 분야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 케이앤 - '케이앤디지털콘텐츠펀드1호'를 결성하여 초고화질(UHD)방송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에 투자할 예정이다.

▷ 2016년 7월까지 65개가 결성된 조합은 8월에 5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세컨더리펀드 1개, 창업초기펀드 1개, 미래계정 펀드 1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오스트인베스트먼트의 '오스트 성장기여2호펀드'가 181억원으로 가장 컸고, 디티앤인베스트먼트의 '성장기업 Venture 투자조합 1호', 플래티넘기술투자의 '지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가 각각 113억원, 111억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 억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모태
스프링캠프	창투자조합	스프링캠프 콘텐츠 투자조합 제1호	100	문화	문화 기타	X
플래티넘기술투자	창투자조합	지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111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O
오스트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오스트 성장기여2호펀드	181	해당없음	중소/벤처일반	X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케이앤디지털콘텐츠1호 투자조합	100	문화	문화 기타	O
디티앤인베스트먼트	KVF	성장기업 Venture 투자조합 1호	113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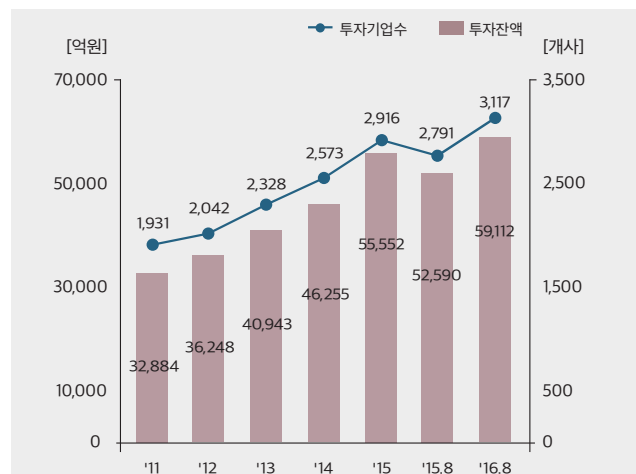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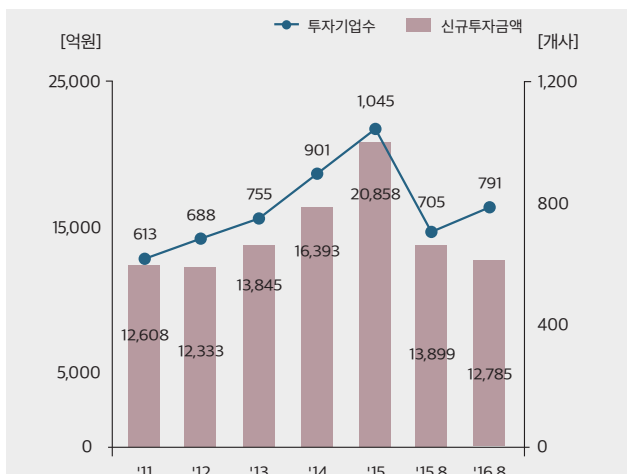
## 신규투자

▷ 금년 8월까지 신규투자는 12,785억원으로 전년 동기(13,899억원)보다 8.0%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791개사로 전년 동기(705개사) 대비 12.2% 증가하였다.

## ■ 전체 신규투자

▷ 8월에는 미래원이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지피씨알, 화이트제약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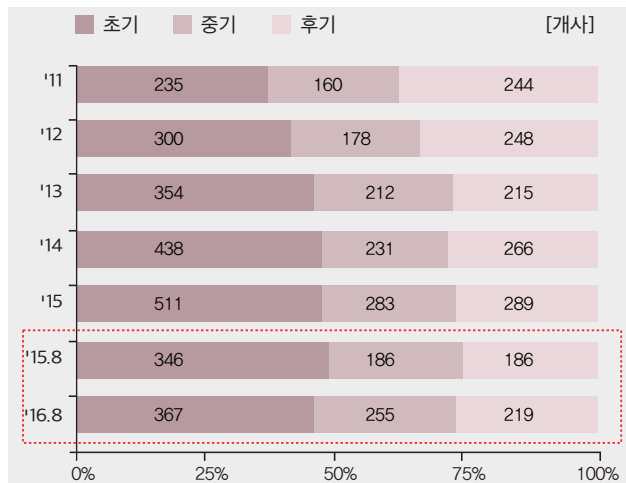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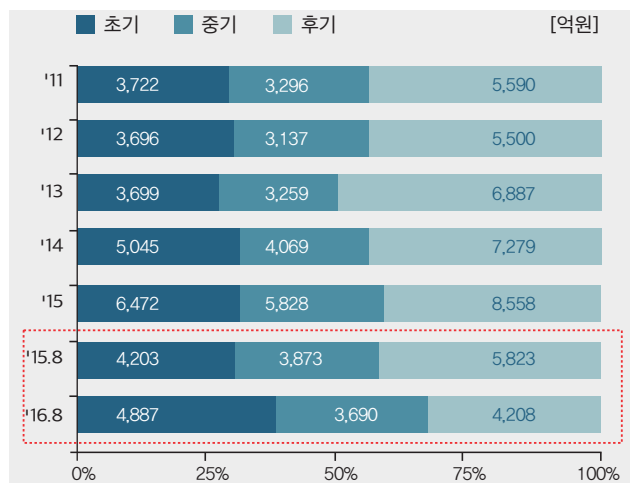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3,117개 업체에 5조 9,112억원 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 ■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8월까지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30.2% 대비 8.0%p 증가한 38.2%를 기록하였다. 이는 8월 금액기준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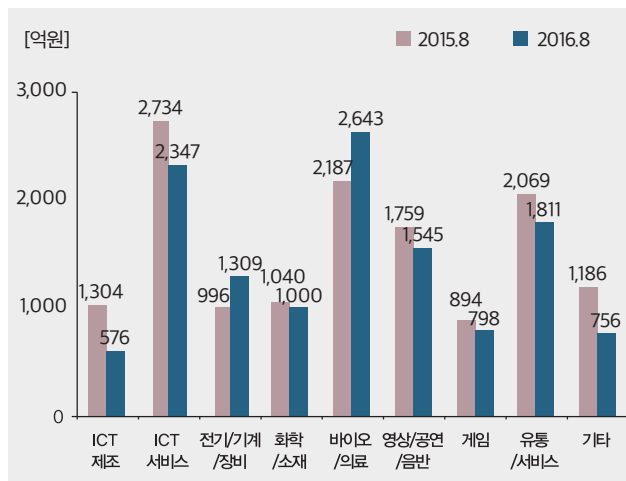
## ■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2,643억원, ICT서비스 2,347억원, 유통/서비스 1,811억원, 영상/공연/음반 1,545억원 순으로 신규투자가 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45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기계/장비 분야도 313억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ICT제조분야는 458억원 감소하였다.

▷ 바이오/의료 분야는 최근 3년간 꾸준히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0.7%를 차지하며 지난해 투자 분야 1위였던 ICT서비스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8	2016.8
ICT제조	1,754	2,099	2,955	1,951	1,463	1,034	576
ICT서비스	892	918	1,553	1,913	4,019	2,734	2,347
전기/기계/장비	2,966	2,433	2,297	1,560	1,620	996	1,309
화학/소재	1,266	1,395	989	827	1,486	1,040	1,000
바이오/의료	933	1,052	1,463	2,928	3,170	2,187	2,643
영상/공연/음반	2,083	2,360	1,963	2,790	2,706	1,759	1,545
게임	1,017	1,126	940	1,762	1,683	894	798
유통/서비스	1,270	608	1,092	2,046	3,043	2,069	1,811
기타	427	342	593	616	1,668	1,186	756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3,899	12,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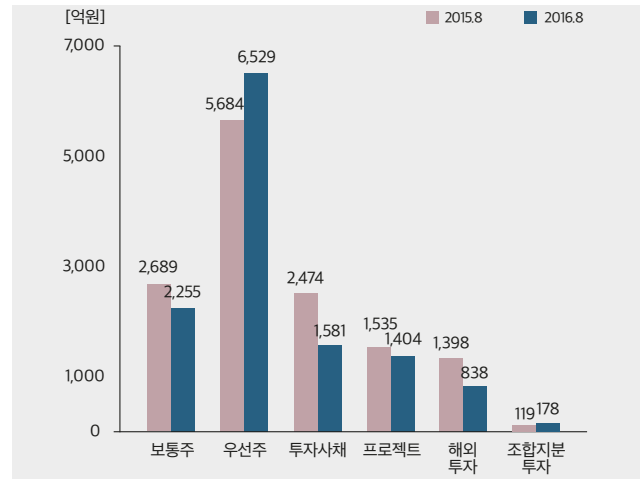


##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6,529억원으로 전체투자의 51.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2%p 증가하였다. 반면 CB/BW 투자는 893억원 감소하였다.
-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인 우선주의 투자가 전년 동기(40.9%) 대비 51.1%로 확대된 반면, 보통주의 투자 비중은 17.6%로 전년 동기(19.3%) 대비 1.7%p 감소하였다.
- ▷ 지역별로는 서울(55.4%)을 비롯한 수도권(79.7%)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도 29개사 838억원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8	2016.8
보통주	3,454	2,403	3,425	3,297	4,226	2,689	2,255
우선주	4,439	4,887	5,038	6,103	8,786	5,684	6,529
CB/BW	2,061	1,833	3,049	3,276	3,272	2,474	1,581
프로젝트	2,247	2,459	1,944	2,681	2,471	1,535	1,404
해외투자	407	751	389	1,036	1,951	1,398	838
조합지분투자	0	0	0	0	152	119	178
합 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3,899	12,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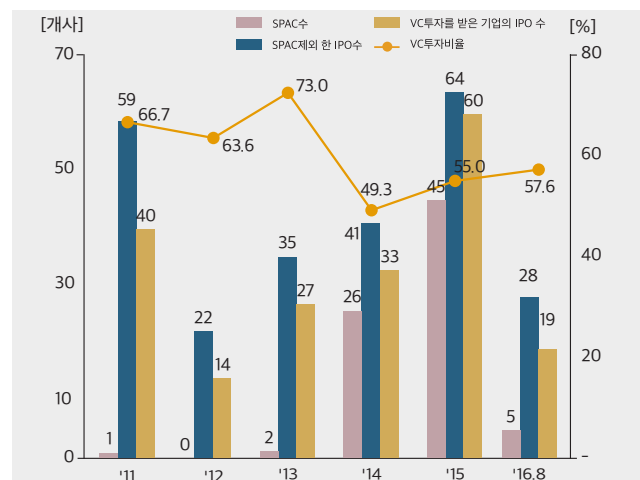
## 회 수

### ■ 유형별 회수

- ▷ 8월까지 회수원금은 6,708억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4.5%로 가장 높았고, IPO가 32.6%, 프로젝트 19.3%였다.
- ▷ 특히, 8월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89건의 거래를 통해 526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매각을 통한 회수가 444억원(8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상환 66억원(12.6%), 기타 15억원(2.8%) 순이었다.
- ▷ 8월에는 코스닥시장에 3개사(팍스넷, 에코마케팅, 형성그룹유한회사)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팍스넷, 에코마케팅 등 2개사가 VC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8	2016.8
IPO	1,080	1,220	1,072	1,411	2,784	1,669	2,186
M&A	86	72	22	163	150	70	86
프로젝트	1,102	1,533	1,613	1,639	1,605	1,174	1,291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08	2,655	2,363	3,080	3,724	2,329	2,289
	채권 1,044	1,165	1,025	1,311	1,614	1,041	699
기 타	37	188	736	217	342	224	157
합 계	5,957	6,833	6,831	7,821	10,219	6,507	6,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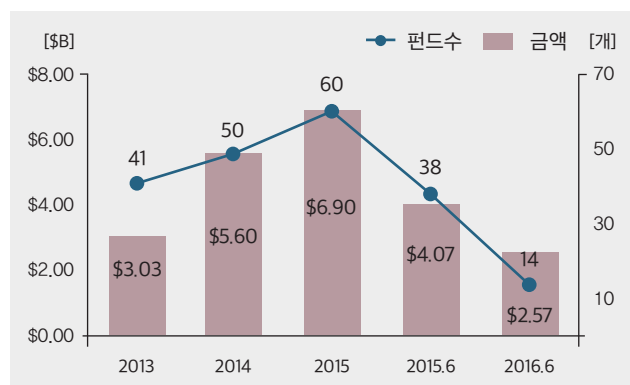
## 해외 상반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자료: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 투자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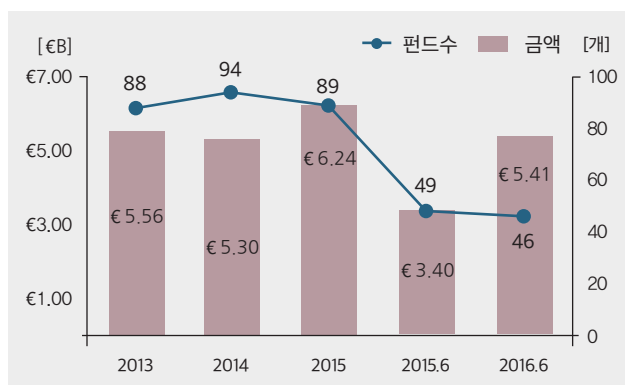
#### 중국

2016년 상반기까지 14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25억 7천만달러(2조 9,581억원)임



#### 유럽

2016년 상반기까지 46개의 펀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54억 1천만유로(6조 9,156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34억유로) 59.1% 증가함



### 펀드결성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5.6	2016.6
중국	34,875	64,456	79,419	46,846	29,581
유럽	71,073	67,750	79,766	43,462	69,156
한국	15,679	25,842	26,925	6,181	16,682

\*환율은 2016년 6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51.0원, 1유로=1,278.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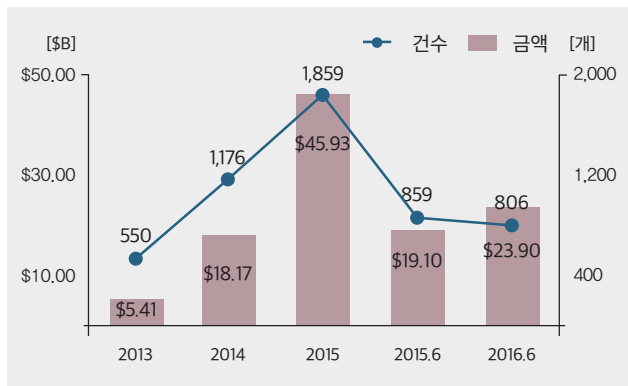
### 비교

2016년 상반기까지 펀드 결성금액은 한국이 1조 6,682억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4.1배 수준, 중국은 1.8배 수준임

## 신규투자

### 중국

2016년 상반기까지 총 806건이 투자되었으며, 총투자금액은 239억달러(27조 5,089억원)임



### 2016년 분기별 신규투자기업(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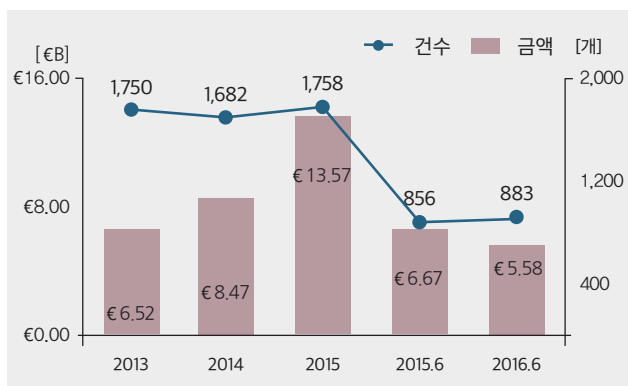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택시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Beijing Xiaoju Technology, 소셜커머스인 China Internet Plus Holding 등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단위 : 백만달러]

순위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China Internet Plus Holding Ltd.	3,300	Beijing Xiaoju Technology Co. Ltd.,	4,500
2	Beijing Leshi Sports Culture Development Co. Ltd.	1,257	Beijing Weiyingshidai Technology Co. Ltd.	471
3	Shenzhou Ucar [Tianjin] Co. Ltd.	471	Beijing Happy Times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451
4	D&J [Shanghai] Investment Management Consulting Co. Ltd.	220	Shanghai Mofang Apartments Management Co. Ltd.	300
5	Chehaoduo Used Car Agent [Beijing] Co. Ltd.	205	Taopiaopiao	267

### 유럽

2016년 상반기까지 총 883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투자금액은 55억 8천만유로(7조 1,329억원)를 기록함



### 2016년 분기별 신규투자기업(유럽)

2016년 상반기 유럽에서는 온라인 패션업체인 Global Fashion Group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단위 : 백만유로]

순위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Mission Therapeutics Ltd.	84	Global Fashion Group SA	300
2	Autolus Ltd.	56	Maxi Mobility Spain SL	112
3	Student.com (UK) Ltd.	56	FarFetch.com Ltd.	102
4	Blippar.com Ltd.	50	Ambatana Holdings BV	93
5	Aprea AB	46	SoundCloud Ltd.	63



## 신규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5.6	2016.6
중국	62,269	209,137	528,654	219,841	275,089
유럽	83,345	108,272	173,465	85,263	71,329
한국	13,845	16,393	20,858	9,939	9,488

\*환율은 2016년 6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1달러=1,151.00원, 1유로=1,278.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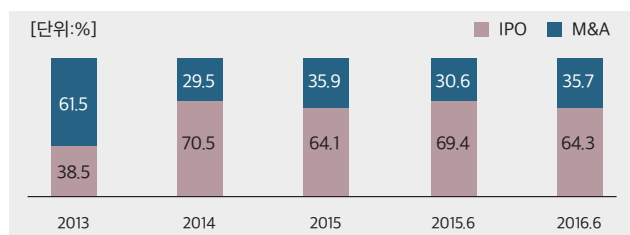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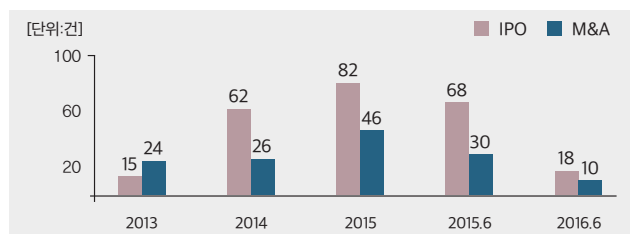
### 비교

- 2016년 상반기까지 신규투자는 한국이 9,488억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9배 수준, 유럽은 7.5배 수준을 기록함
- 13년~15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은 191.4%로 유럽의 44.3%, 한국의 22.7%보다 현격하게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회수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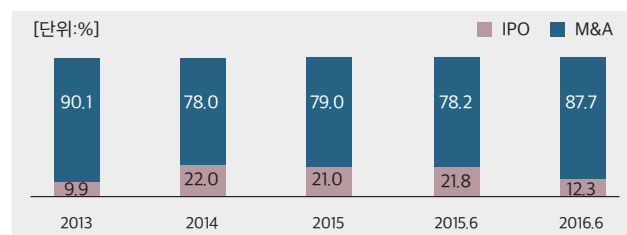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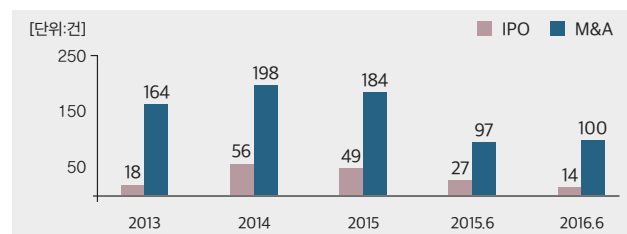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까지 건수기준으로 18건 (64.3%)이 IPO, 10건 (35.7%)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 유럽

2016년 상반기까지 건수기준으로 100건 (87.7%)이 M&A, 14건 (12.3%)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 비교

- 2016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회수유형은 대체로 IPO를 통한 회수를 하는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유럽은 주로 M&A를 통해 회수하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다만, 올해 중국의 증시불안으로 중국벤처기업들의 M&A를 통한 엑시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16년 1분기(28.6%) → 16년 2분기(42.9%)

##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3차정시와 8월수시 출자사업의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3차정시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씨케이디창업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등 총 4개사가 선정되었고 출자요청액 742억원, 결성예정액은 1,313억원이며 8월수시에는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30억원을 요청하여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한편 9월수시 출자사업을 마감한 결과 신청조합수 2개, 결성예정액 350억원, 출자요청액 127.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 한국벤처투자 3월정시 및 8월수시 선정결과

[단위 : 억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출자요청액	결성예정액
3차 정시	중진	M&A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42	213
		바이오산업육성	프리미어파트너스	300	750
		고급기술인력 창업	씨케이디창업투자	100	150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IP담보대출)	아이비케이캐피탈	100	200
8월 수시	문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마그나인베스트먼트	30	100
계				572	1,413

### ■ 한국벤처투자 9월수시 접수결과

[단위 : 억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출자요청액	결성예정액
9월 수시	문화	문화산업투자 KVF 결성목적	유니온투자파트너스	7.5	150
	미래	가상·증강현실(VR·AR)	이엑스인베스터	120	200
계				127.5	350

## 공무원연금공단

2009년 이후 7년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운용사당 최대 150억원, 총 300억원 이내의 출자가 약정됐고 공무원연금의 출자비율은 총 펀드결성금액의 20% 이내다. 이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정 섹터나 전략의 제한을 없앤 것이 특징이며 27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7일까지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지난 19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원자가 없어 무산되었던 M&A-세컨더리 펀드에 재출자를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운용사 2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조합 하나당 170억원, 총 340억원 출자할 예정이며 형태는 KVF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가능하다. 접수는 10월 6일까지이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LP지분 세컨더리 펀드(증권사 부문)와 성장전략 M&A 펀드의 운용사로 IBK투자증권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를 선정하고 각 600억원, 4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의 운용사로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신한캐피탈, 아주아이비투자를 선정하여 각 100억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K-Growth 글로벌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000억원 이내로 각 운용사별 350억원 범위내에서 출자하여 총 5000억~6000억원 이내의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사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이며 접수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로 6개월간 지속된다.

###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운용사 선정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운용사	출자액	결성예정액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신한캐피탈	100	300
	아주아이비투자	100	300
LP지분 세컨더리 펀드(증권사 분야)	IBK 투자증권	600	1,200
성장전략 M&A펀드(중소·벤처분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400	1,000

# 04

## 편집자 노트

EDITOR'S NOTE

---

한번 '야단법석'을 떨어보시지요

---





# “ 한번 ‘야단법석’을 떨어보시지요 ”

**야단법석(野檀法席)**이란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본래의 뜻과 달리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한자가 다르다. 야단(惹端) 즉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매우 부산하게 법석거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야단법석은 ‘야외에서 행하는 강의’를 의미한다. 석가모니가 중인도 마갈타국(지금의 인도 동북부의 도읍지)에서 동북쪽에 있는 영취산에서 법화경(법화사상을 천명하는 종파인 천태종의 근본교리)을 설파했는데 여기에 무려 3백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룬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야단법석을 하는 이유는 법당이 좁아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넓은 터에 자리를 펼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요구를 배려한 이벤트인 것이다.

지난 8월 22일 개최된〈벤처투자컨벤션〉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야단법석의 행사였다.

창업가나 중소기업이 일일이 벤처캐피탈을 찾아다니며 만나고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는 그 고충이 더하다. 벤처캐피탈의 95%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컨벤션〉은 단일투자 관련 행사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행사였다. 참가한 창업가나 중소기업만도 227개나 되었고 그중 약 53%가 지방소재기업이었다. 이들을 상담하고 투자안내를 해주거나 투자유치기업의 발표회에 참가한 심사역 만도 210명으로 77개의 벤처캐피탈사가 참석했다. 이날 40개사의 기업설명(IR)도 곁들여졌다.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준비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는 야단이 아닌 야단법석으로 성황리에 마쳐 후원기관과 참석자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협회는 대외적으로 몇 가지 유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무국과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돋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 총리실과 청와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26년의 역사에

걸 맞는 전문투자집단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현대원 미래전략수석은 몇 차례에 걸쳐 만족을 표시하며 협회임직원에 격려의 오찬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반응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화두를 남기기도 했다. 바로 투자를 하는 회원사와 투자를 원하는 측의 가교역할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작년 2조8백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실적에 이어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신규투자조합 결성액도 2조 원대를 돌파하며 역대최고수준을 나타냈지만 다양하고 풍성하게 조성된 공공펀드가 왕성하게 투자집행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투자자가 창업가나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다가 서길 원하는 것이다. 창업과 벤처투자는 지난 3년간의 짧은 기간에 역대최고수준에 이르렀고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투자실적을 직접 챙기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투자자와 피 투자자 매칭을 위해 이번 행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 엔젤까지 나서서 **창업가나 벤처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별 투자자가 제한된 인원으로 투자처 발굴이나 독자적인 투자행사를 개최하기가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협회는 투자생태계의 혁신플랫폼으로써 투자수요자와 투자자의 양방향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협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대외적인 위상과 객관적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의 〈벤처투자컨벤션〉처럼 차분하면서도 깔끔하게 치르는 행사라면 바람직한 ‘야단법석’으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이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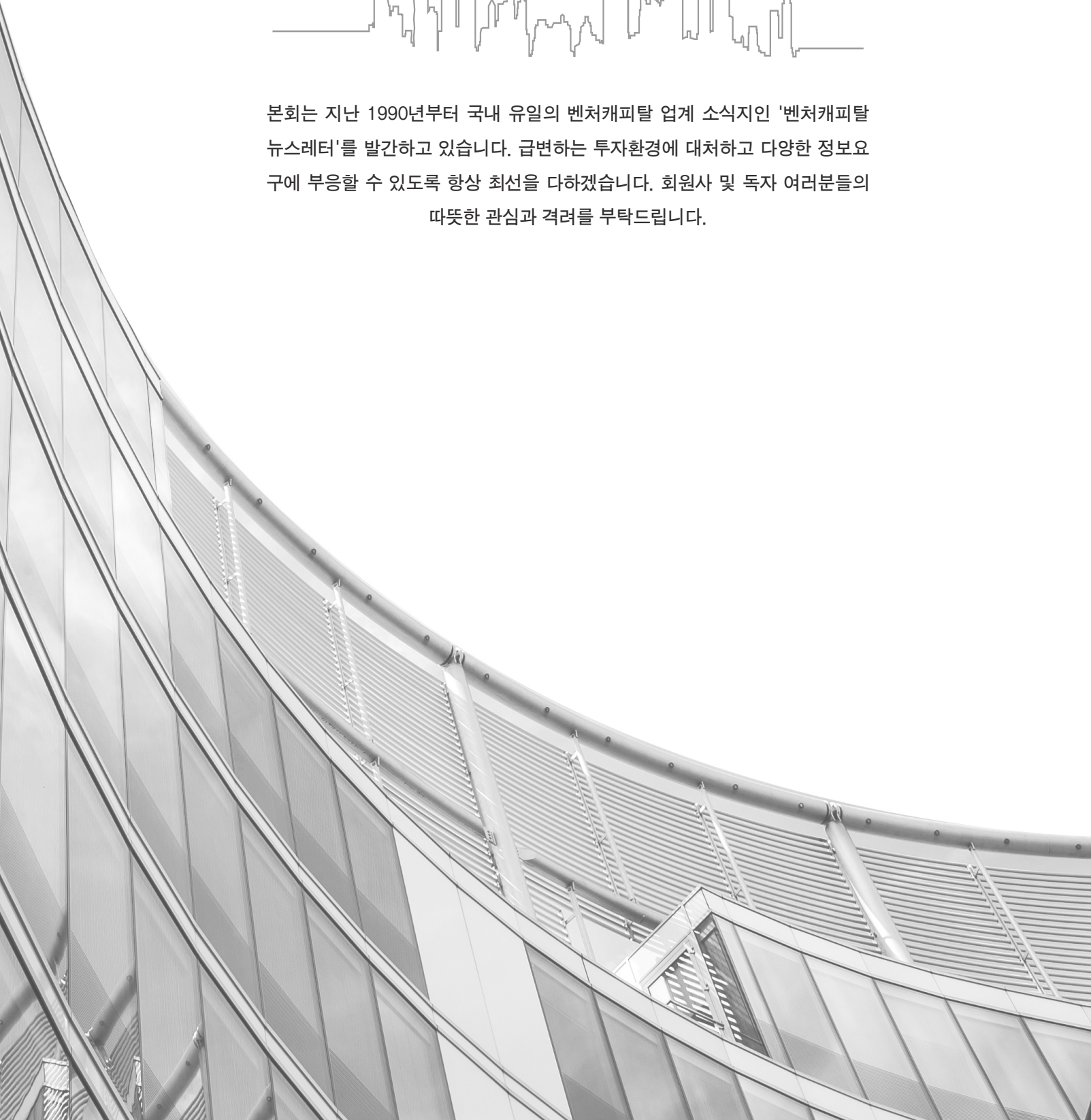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기술경영학 박사)







본회는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업계 소식지인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www.kvca.or.kr](http://www.kvca.or.kr)